

# 애플 맥주, 대형마트 수입맥주 1위 재탈환



국내 수입 맥주 시장에서 아시아 맥주가 약진하며, 일본 맥주가 세계 맥주 시장 1위를 재탈환했다. 롯데마트가 올해 세계 맥주 판매 현황을 살펴보니 유럽 맥주의 매출은 줄어든 반면, 아시아 맥주의 매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에서 올해 아시아 맥주의 매출 비중은 전체 세계 맥주 매출 중 33.7%를 기록, 3년 연속 매출 비중 증가세를 보이며 6개 대륙 중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유럽 맥주

매출의 경우 2015년 60.7%, 2016년 58.7%, 2017년 현재 58.2%로 지속 감소세를 보였다. 아시아 맥주의 이 같은 도약은 일본과 중국 맥주의 약진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일본 맥주의 경우 세계 맥주 수입 초창기부터 국내에 알려졌던 '아사히' 브랜드 등을 통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출 세계 맥주 1위 국가를 차지했다. 이후 2014년과 2015년에는 독일

아사히·칭따오 등 인기...유럽맥주 매출 하락  
네델란드 하이네켄·프랑스 크로넬버그 '선망'

에게 1위 자리를 내주었으나, 지난해와 올해는 다시 1등을 차지했으며 매출 비중도 함께 늘었다. 아시아 맥주의 약진을 이끈 중국 맥주 역시 2015년 6.0%의 매출 비중으로 4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지난해와 올해 등수는 매해 한 계단씩 하락했으나 매출 비중은 지난해 7.1%, 올해 7.5%로 매년 비중을 늘려나갔다.

일본 맥주의 경우 4대 맥주(기린, 산토리, 삿포로, 아사히/가나다순)의 취급 종류가 늘어나고 빗꽃 에디션 등 한정판 맥주를 출시해 신보인 것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되며, 중국 맥주는 '칭따오'와 '칭따오'라는 유행어가 생길 만큼 특정 브랜드 상품이 국내 시장에 안착한 결과로 보인다.

반면, 유럽 맥주의 선두 주자였던 독일 맥주는 2014년 30.9%의 매출 비중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매출 비중은 지속 감소세를 기록, 지난해와 올해는 2위로 내려앉았다. 이 같은 결과는 메가 히트 브랜드가 없는 독일 맥주의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세계 맥주 시장 성장기에는 다양한 맥주들을 먹어보는 재미를 중시

했다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는 현재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브랜드 파이가 있는 세계 맥주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찾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일본의 4대 맥주(기린, 산토리, 삿포로, 아사히/가나다순), 중국의 칭따오 등에 비해 그 국가와 바로 연관시킬 수 있는 맥주 브랜드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네델란드 맥주가 '하이네켄'이라는 메가 히트 브랜드로 매년 꾸준히 3~4위를 기록하고 있고 프랑스 맥주 또한 '크로넬버그 1664 블랑'의 인기로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5위에 이름을 올린 것도 독일 맥주의 이쉬운 현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사례다.

이영은 롯데마트 주류팀장은 "아시아 1위 일본과 2위 중국은 아시아 맥주 전체 매출의 88.0%를 차지하나, 유럽 1위 독일, 2위 네델란드는 유럽 맥주 전체 매출의 49.8%에 불과하다"며 "세계 맥주 시장에선 사실상 일본 중국 두 나라가 유럽 연합과 경쟁하고 있는 형세"라고 말했다.

뉴시스



## 아이폰8, AR·3D센서 장착한다

이르면 9월 출시...안면인식·무선충전 등 최첨단

애플사의 아이폰8이 이르면 오는 9월 출시된다. 아이폰 탄생 10돌을 즈음해 나오는 아이폰은 차세대 증강현실(AR) 등 혁신적인 정보기술(IT)을 장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이폰은 새로운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11을 기반으로 안면인식을 할 수 있는 3D 센서 기능과 테두리 없는 전면 스크린, 무선충전 기능 등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CNBC 뉴스는 17일(현지시간) 아이폰 부품 공급 체인과 전문가들로부터 취득한 정보들을 종합해 올 하반기 출시되는 아이폰이 어떤 모습과 기능을 갖추고 우리 앞에 등장할지를 정리해 보도했다.

◇ 팬시 디스플레이 = 아이폰8은 새로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 갤럭시 S8에서 사용하고 있는 OLED 디스플레이는 보다 밝고 선명한 색상을 보여줄 뿐 아니라 배터리 수명도 늘릴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 테두리 없는 전면 스크린 = 아이폰8의 전면은 테두리가 거의 없는 스크린으로 거의 채워지게 된다. 현재 아이폰 전면 중상단과 하단은 페이스타임 카메라와 홈버튼 이어폰 등을 장착하기 위한 공간으로 할애되고 있다. 아이폰8은 이들을 재배치 함으로써 전면은 모두 스크린으로 채워도록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안면 인식 '3D 센서' 탑재 = 일본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아이폰8은 안면 인식을 할 수 있는 3D 센서를 갖추고 있다. 삼성 갤럭시 S8은 이미 안면 인식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3D 센서는 대만 카메라 렌즈업체 라간정밀(Largan Precision)이 개발한 것으로 얼굴 및 홍채 인식 기능을 지니고 있다. 라간정밀은 애플에 3D 센서를 공급하고 있다.

◇ 무선 충전 = 아이폰8은 사상 처음으로 무선충전 기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선충전은 금속 재질의 스마트폰에는 잘 작동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아이폰8의 뒷면은 유리 사용

만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선충전은 충전 패드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기만 하면 된다.

◇ 최신 운영체제 iOS11 탑재 = 애플은 오는 9월 새로운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11을 선보인다. iOS11의 가장 큰 특징은 AR 기능이다. 레스토랑에 들어가 메뉴판의 요리이름에 아이폰을 비추면 그 요리의 사진과 설명이 스크린에 떠오르는 식이다. iOS11은 압축포맷을 지원하기 때문에 iOS10보다 두배 더 많은 사진과 동영상 저장할 수 있다.

◇ 스크린 지문 인식기 기술 완성 못해 지연 = 아이폰8의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전면 풀 디스플레이 장착 기술을 갖추는 데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지문 인식기를 스크린에 갖추는 기술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시를 연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이 같은 기술상의 이유로 인해 아이폰8의 출시가 12월 말까지 지연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대당 1200달러 = 아이폰8 가격은 대당 최소한 1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애플의 한 관계자는 아이폰8의 가격이 1200달러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다. 애플은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30개월의 분할 지불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 금감원, 종이통장 발행 9월부터 줄인다

60세 이상 어르신은 제외

금융감독원은 9월부터 시행되는 종이통장 발행 감축계획을 18일 안내했다.

통장기반의 금융거래 관행 개혁은 소비자에게 종이통장 발급·미발급 여부를 묻고, 소비자 희망에 따라 종이통장 제공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때 종이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현행과 같이 종이통장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종이통장을 미발행하면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으로 불안해하기도 한다.

은행은 메인 전산시스템 외에도 분리된 공간에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해킹 등으로 인한 전산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소

비자들은 자신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 금감원은 종이통장 미발행 관행이 정착되면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 종이통장을 발급받은 예금주는 자신이 영업점을 방문하더라도 통장(또는 현금카드)이 없으면 통장분실 절차 등을 거쳐 출금해야 하는데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으면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 필요가 없어 영업점 방문에 따른 시간 소요 및 통장 재발급 수수료 지급도 없어진다.

또 통장분실로 거래내역이 노출되거나 인감 및 서명 등이 도용되어 추가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이통장 미발행 대상에서 60세 이상은 2~3단계 모두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 현대차, 쏘나타 '뉴라이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출시

현대자동차(주)가 대한민국 대표 중형세단 쏘나타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새롭게 선보인다.

현대차는 쏘나타(1F)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쏘나타 뉴라이즈(New Rise)'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18일부터 시판한다고 밝혔다.

쏘나타 뉴라이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지난 3월 출시 후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쏘나타 뉴라이즈의 디자인과 첨단 안전·편의 사양을 계승하고 배터리 평생보장 서비스 실시 등 강화된 상품성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일상생활엔 전기차, 주말엔 하이브리드'라는 콘셉트로 쏘나타 뉴라이즈 PHEV는 하이브리드카를 기반으로 별도의 외부충전 시스템을 함께 적용해 전기차의 단거리 경제성과 하이브리드카의 긴 항속거리를 모두 갖췄다.



쏘나타 뉴라이즈 PHEV는 ▲친환경차 전용 휠, 엠블럼 ▲히든형 싱글머플러 ▲윤전승관을 확인할 수 있는 클러스터 등을 적용해 차별화된 디자인을 구현했다.

쏘나타 뉴라이즈 PHEV는 고효율의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장착해 1회 충전시 전기 모드만으로 최대 45km의 주행이 가능하다. 하이브리드 모드 주행 약 940km를 포함해 총 985km의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전의 걱정 없이 사용자의 주행 상황에 따라 경제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뉴시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